

분리 Tray를 이용한 즉시의치 수복증례

고려대학교 치과학교실 이재범, 이정렬, 신상완, 서규원

잔존 치아를 발거하기 전에 발치 후의 치조제를 예측하여 주모형상에서 미리 적절히 처치한 후 의치를 미리 제작한 다음 잔존된 자연치아 발거 및 이에 수반되는 외과적 처치에 이어 즉시로 삽입하는 의치를 즉시의치(Immediate denture)라 한다. 즉시의치는 자연치아를 보다 정확하게 재현시킬 수 있고 수직고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치아발거 즉시 의치를 장착하여 환자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데 장점이 있다. 즉시의치는 구치부를 먼저 발치하고 약 6주 정도 경과한 다음 전치부 발치전에 제작하고 전치부 발치후 즉시 장착해 준다. 그러나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인상을 채득해야 하므로 의치의 유지에 정확한 marginal seal을 얻기 어렵다.

지금까지 즉시의치 인상을 채득하는 방법은 전악맞춤 tray를 가지고 한 번에 인상채득하거나, 무치악부만 맞춤 tray로 인상을 채득하고 이 위에 stock tray에 alginate 등으로 인상을 채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왔다. 그러나 이 두 방법 모두 치아가 잔존한 부위와 동시에 정확한 border부위의 인상채득이 어려웠다. 이에 Narin.R.I.등은 유치악 부위의 border부위만 따로 인상채득을 위해 분리된 tray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방법은 먼저 기능인상을 modeling compound를 이용하여 채득한 후 치아부위를 제외하고 무치악부위와 유치악부위의 tray를 함께 제작한다. 그 후 고무인상재로 인상채득 후 두개의 tray를 기공실에서 연결하여 경석고를 부어 최종모델을 만들어 기존의 방법으로 즉시의치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즉시의치인상을 채득하여 수복해준 결과 초기에 좋은 의치 적합을 이룩하였기에 이 방법을 소개하는 바이다.